

농촌진흥청, 지속 가능한 토종닭 산업 성장·혁신 전략 모색

-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토종닭 산업 발전 전략 논의
- 산·학·연·관 전문가 참여…품종개량·유전체 연구·산업·정책 방향 공유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 국립축산과학원은 이달 초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에서 ‘토종닭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혁신 전략’을 주제로 학술 토론회(심포지엄)를 개최했다.

한국가금학회 분과 중 하나로 국립축산과학원 가금연구센터가 주관한 이번 학술 토론회에는 토종닭 관련 산업 종사자와 연구자 등 약 50명이 참석해 지속 가능한 성장 및 혁신 전략을 모색했다.

이날 한국육계협회 및 한국토종닭협회 문정진 회장의 축사에 이어 국립축산과학원 추효준 농업연구사가 ‘토종닭 순계 개량 및 품종 개발 현황’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 충남대학교 이준현 교수가 ‘토종닭 유전체 연구 현황 및 최신 연구 동향’을 소개했고, 한국토종닭협회 김영준 부장이 ‘국내 토종닭 산업 현황 및 발전 방향’을 발표했다. 마지막으로 농림축산식품부 신소연 사무관이 ‘토종닭 관련 정책 방향 및 제언’을 주제로 제언했다.

종합 토론 시간에는 토종닭 산업화 확대를 위한 연구, 산업, 정책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소비자 수요를 반영한 품종 개발, 유전체 정보를 활용한 정밀 개량, 생산성 향상 기술개발과 함께 안정적인 생산·유통 기반을 마련해야 토종닭 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된다는 데 공감했다.

국립축산과학원은 앞으로 토종닭 순계의 능력 개량과 유전체 정보 활용 연구를 지속하고, 산업 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토종닭 품종 개발과 사양기술 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토종닭은 우리 고유의 유전자원을 활용한 차별화된 축산물로, 소비자의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고 국내 가금 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자원이다.

국립축산과학원은 토종닭 순계를 활용해 육질과 풍미를 차별화한 ‘우리맛닭’을 개발·보급하는 등 토종닭 품종 개발과 산업화 기반 마련에 기여해 왔다. 현재는 토종닭 순계의 생산성과 유전적 특성을 평가하고, 유전체 정보를 활용한 정밀 개량과 산업 수요 맞춤형 품종 개발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가금연구센터 김경운 센터장은 “토종닭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품종 개발뿐만 아니라 생산, 유통, 소비, 정책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한다.”라며 “이번 학술 토론회가 토종닭 산업의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 성장 전략을 구체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붙임. 『토종닭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혁신 전략』 사진

담당 부서	국립축산과학원 가금연구센터	책임자	센터장	김경운 (033-330-9500)
		담당자	연구사	홍의철 (033-330-9555)
	농촌진흥청에서 연구·개발한 농업의 모든 것  농사로			



문정진 한국토종닭협회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



국립축산과학원 주효준 농업연구사가 '토종닭 순계 개량 및 품종 개발 현황'을 발표하고 있다.



충남대학교 이준현 교수가 '토종닭 유전체 연구 현황 및 최신 연구 동향'을 발표하고 있다.



토종닭협회 김영준 부장이 '국내 토종닭 산업 현황 및 발전 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신소연 사무관이 '토종닭 관련 정책 방향 및 제언'을 발표하고 있다.



참석자들이 토종닭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방안을 주제로 종합 토론을 하고 있다.